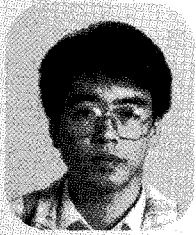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돈 전략



이 재 춘
한국 양돈 컨설팅 그룹
한별 피그 클리닉

구 제역(FMD)의 국내 발병으로 돈콜레라 박멸과는 관계 없이 대 일본 돈육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돈육 총생산의 대략 15%를 차지하던 수출 물량이 그대로 내수로 돌려지게 되는 부담을 안게되었고, 그 결과 향후 1 ~ 2년간의 국내 돈가는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우리 양돈업계에 큰 위기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양돈장의 군살을 제거하는 체질 개선 기간으로 적극적인 경영을 한다면 오히려 국내 양돈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불황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 후보돈의 자가선발이 증가한다.

- 노산돈의 비율이 높아진다.
- 방역 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
- 인건비 지출이 줄어든다.
- 출하 체중이 낮아진다.
- 사육두수 감소
-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 기록분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 시설투자의욕이 낮아진다.
- 양돈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상기 열거한 사항들은 돈가 하락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로써 이 중 일부는 불황기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어떤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주로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1. 후보돈의 자가선발률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돈가하락시엔 후보돈의 외부구입이 감소하고 자체선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곧 번식 생산성 저하와 비육돈의 육질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후보돈은 돈가에 상관없이 꾸준한 입식계획에 의거 도입을 해야 한다.

모돈군은 농장의 생산라인의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 안될 부분이다.

2. 노산돈 비율을 줄이고 모돈군을 정예화 한다

불황기때 후보돈의 보충이 원활치 못해 노산돈이나 성적불량 모돈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성 저하와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농장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모돈 도태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 모돈의 도태기준

- 3회 연속 불임돈이나 과비된 불임돈은 산차에 관계 없이 즉시 도태한다.
- 2회 이상 연속 유산한 모돈
- 3산 이상 모돈의 성적이 농장의 초산돈 평균 성적에 미달 할 때
- 7산 이유모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태를 원칙으로 한다.
- 이유후 40일 이상 발정이 지연된 무발정 모돈
- * 경산돈 : 30일 ~ 40일 까지 무발정시 도태
- * 초산돈 : 40일 ~ 50일 까지 무발정시 도태
- 사고후 (불임, 유산) 40일 이상 무발정인 모돈
- 지체불량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모돈
- 1산 ~ 3산 까지의 포유두수가 평균 7두 이하인 모돈
- PHS (MMA) 증상을 보이는 모돈 (자돈군 일도 불량 포함)
- 질탈, 항문탈, 난산, 무리한 조산을 한 모돈
- 식욕부진, 식물 등으로 위축되거나 포유능력이 없는 모돈
- 2산 연속 식자벽이 있는 모돈 (압사 다발 포함)
- 유방염, 맹유두가 3개 이상인 모돈
- 체형이상(바디컨디션 불량), 운동실조, 심한 외상이 있는 모돈
- 각종 질병으로 예후 불량시 폐사전에 신속

히 도태

- AR 양성 모돈 (외관증상 발현시 즉시 도태)

3. 불황기일수록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불황기에는 보통 백신접종률이 낮아지고 치료 및 예방용 약제의 사용량도 감소하게 되므로 질병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본 백신 및 소독약과 같은 예방용 약품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약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져 꼭 써야 할 약제를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인건비 지출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것인가?

적절한 인력 구성은 필수 조건이나 오로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는 농장을 가끔 보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이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출하체중이 낮아지는 의미는?

돈가가 좋을 경우 비육말기의 사료요구율(35 ~ 40)을 고려해 볼 때 체중을 크게 하여 출하하는 것이 득이 되나 돈가가 낮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즉 비육 과정 중 말기에는 사료를 많이 섭취를 하면서도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시기, 즉 사료요구율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돈가가 낮을 때 출하체중을 늘리게 되면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6. 사육두수는

무리하게 많은 두수를 끌고 가게 되면 오히려

사육환경 불량 및 관리부실이 유발되어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지므로 경영상 적자폭이 크게 증가 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기에는 노산모돈 및 능력저하 모돈의 도태율을 높이고 후보입식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동안 밀사로 문제가 되었다면 이러한 관리로 자돈사나 비육사가 다소 숨통이 트여질 수가 있다. 1~2년 후를 대비하여 적정 두수를 알차게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농장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다.

7. 사료비 절감은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돈 생산비중 60 ~ 70%를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므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폭이 매우 크다.

- 가급적 80~90일령 이내에서 육성돈 사료로 전환 급여한다.(말기에는 비육 후기 사료 급여)
- 농장에 맞는 품질의 사료를 선택한다. 고가(高價)의 사료가 모든 농장에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사료 허실 요인을 색출 제거한다. (사료통 관리, 구서, 변패방지 등...)
- 사육환경 개선 및 만성 소모성 질병의 예방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여름철, 겨울철을 대비하여 돈사 단열을 철저히 한다.
- 연중 지속적으로 사료급여 상태가 효율적인가를 점검한다. (사양시험 또는 전산 관리를 통해 점검한다)
- 사료 거래를 공동 구매방식과 현금 결제 조건으로 전환한다.



▲돈가하락시엔 후보돈의 외부구입이 감소하고 자체선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곧 번식 생산성 저하와 비육돈의 육질 개선에 악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돈은 돈가에 상관없이 꾸준히 입식계획에 의거 도입을 해야 한다.

8. 불황기 일수록 경영분석의 가치가 높아진다

농장 경영에 있어서의 기록은 크게 생산기록과 금전출납 기록(즉 회계기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기록은 다시 번식돈 관리 및 비육돈 관리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많은 농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번식돈 관리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번식돈 관리 기록

자돈 생산과 관련된 번식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번식부분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개선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모든 개체

번호 부여와 현황판 관리를 시작으로 교배, 분만, 이유, 그리고 모돈 전입과 도폐사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한다.

2) 비육돈관리

- 비육돈의 도폐사 현황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일령대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폐사 손실이 많은지 파악이 용이하다. 폐사 손실은 사료비 부담을 크게 높이게 된다.

- 돈사별 전입 전출의 기록으로 농장 전체의 사육현황을 항상 파악 할 수 있다.

- 비육돈 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사료비, 약품비, 그리고 출하내역을 기록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료의 kg당 평균단가는 물론이고 비육돈 출하 kg당 사료비와 약품비가 얼마나 되는 지를 파악 할 수 있다.

- 이러한 기록을 매월 분석해 보면 현재의 사료비가 적정 수준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게된다.

3) 회계관리

회계관리에는 농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되며 자산, 자본 및 부채등에 대한 종합적인 농장의 재무상태가 기록이 되므로 이러한 기

무리하게 많은 두수를 끌고 가게 되면 오히려 사육환경 불량 및 관리부실이 유발되어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지므로 경영상 적자폭이 크게 증가 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기에는 노산모돈 및 능력저하 모돈의 도태율을 높이고 후보입식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다.

록을 통하여 농장의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관리는 가급적 전산화하는 것이 정확하고 활용도가 높다.

9. 시설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황기에 신규 시설투자는 사실 매우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향후 호황기를 예측하고 역으로 어려운 시기에 투자하는 전략도 성공 사례가 있어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돈가에 구애됨 없이 항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양돈업 포기에 수반되는 돼지의 이동

돈가 폭락으로 인해 사육의욕이 저하되면 기본적인 사양관리 및 환경관리가 소홀해지며 또한 백신접종 및 치료약제 사용이 줄어들어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질병의 피해가 커지게 되면 농장운영이 어렵게 된다. 결국 농장을 정리하면서 돼지는 잔값을 노리고 있던 수요자들에 의해 여러 농장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때 환돈들까지도 타 농장으로 판매가 되어 질병 전파가 된다.

이와 같은 예는 실제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하나의 양돈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양돈장에 타격을 주게 되고 결국 국내 양돈 기반까지도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제역, 오제스키병, 돈콜레라 등과 같은 전염성 강한 질병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중돈 이외의 돼지를 중개상을 통해 잔값에 구입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양돈